

# BORYUNG

BORYUNG  
PHARMACEUTICAL  
GROUP  
MAGAZINE

2021 WINTER



BRING LIFETIME CARE

Vol. 405

3

Cover story  
꿈 속의 유명  
Flying 2018

보령 BRing 문화 시리즈  
기록\_하다

6

Work & Solution

8

HashTag  
소중한 하루를 남기는 방법

10

BR Writer  
ADIEU 2021년도  
수고했어 나 자신!

12

2021 BR NEWS  
2021년 보령제약 뉴스 총정리!

14

BR culture  
보령제약 창립 58주년 기념행사

16

HOT BR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  
경북울진 연세의원 이종규 원장

20

Best BR Team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우리는 '홍길동'입니다  
CNS 영업1팀

24

BR人 탐구생활  
제약사의 생명권, 지적재산권을 지키다!  
보령제약 특허팀 이경준 팀장

28

BR It  
브레멘 음악대의 좌충우돌 데뷔기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옥각산 쿨

30

Life  
네 개의 세상  
그리고 겨울 세계

32

Story  
현악기의 줄을 고르듯  
정신을 조절하는 조현병 치료제

36

BR News

## BORYUNG 2021 WINTER

보령 제39권 4호(통권 405호)  
발행처 보령홀딩스  
03051 서울특별시 북촌로 104 계동빌딩  
발행인 보령홀딩스 이준희  
발행일 2021년 12월 21일  
등록일 1982년 11월 27일  
기획·취재·편집 디자인 큐라인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분들은  
연락주세요.  
02.708.8424



### Cover story

## 꿈 속의 유명

글. 아트파크 권은지

제유성(1963~)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San Francisco Art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수료하고, 아트파크, 한가람 미술관, 갤러리현대, 국립 과천 과학관, 서울 시립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작품은 서울 시립미술관, 보령제약, 토탈미술관, 현대아산병원, 산업은행, (주)신영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에 소장되어 있다.



Flying 2018/ 캔버스에 유화, 140x140cm

12월 마지막 날 밤, 조금이나마 몸을 녹이려 성냥불을 켜 성냥팔이 소녀의 불빛처럼, 제유성의 작품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황홀한 환영을 연달아 보여준다. 작품 《Flying》은 성냥 두약처럼 붉은빛의 가장자리와 중첩된 도형이 푸른빛을 띠는 중심으로 경계가 나뉜다. 두 세계를 잇는 매개, 즉 날고 있는 두 원뿔을 따라가면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중앙의 푸른빛을 따라가다 보면 부유하는 형태가 꾸리는 환상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자신에게 귀속된 세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업을 구상한다. 원근법을 초월한 새롭고 독특한 구도를 만들어내고 정형화된 세계를 벗어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새로운 구도에 다채로운 색감으로 안정감을 주며 선명한 색감의 오브제는 어린아이들의 색종이 조각들처럼 캔버스 위를 유명하며 경쾌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안데르센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불빛을 통해 투영한 것이 꿈꿔왔던 행복이라면, 작가는 작품 속 연출을 통해 우리에게 심연을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소녀가 바랐던 온기가 가득한 환영처럼 작품 《Flying》은 따뜻한 연말을 소망하게 한다.

보령 BRing 문화 시리즈

# 기록\_하다

# Record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일 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면 그 시골벽적했던 일상에서 정작 특별하게 생각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은 그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꿈이었던지 헷갈릴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처럼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이와 함께 느꼈던 감정,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시간에 휩쓸려 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죠.

우리는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글씨를 적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손을 움직여 기록하세요. 당신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질 거예요.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라. 현역 시절에 나는 경기에서 맞붙은 모든 투수가 던지는 공의 특성과 습관을 세세히 기록했다.”  
노무라 가쓰야\_야구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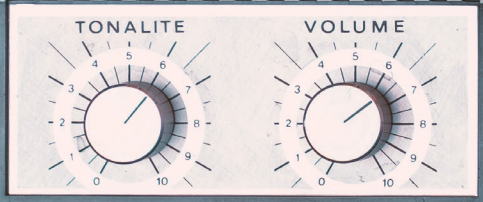
“기록하고 잊어라.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비결은 바로 메모 습관에 있다.”  
사카토 켄지\_작가

“꿈과 목표를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방법이다.”  
마크 빅터 한센\_작가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정약용\_학자

“역사의 차이는 곧 기록의 차이다. 데이터, 경험, 역사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다.”  
이건희\_기업가

“내가 역사를 기록하려 하므로 역사는 내게 친절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_정치인



## 당신의 삶을 바꿔줄 메모 습관

꼼꼼함을 요하는 업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 메모의 힘은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크게 작용합니다. 좋은 메모는 단순히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스치는 영감을 잡아두고 그것이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 뱅크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메모'란 무엇일까요? BR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줄 메모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 아이디어가 절박한 당신에게

회의 때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하는데, 머릿속엔 그저 그런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기획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라고 하는데, 그 영감이 도대체 언제 오냐구요. 제가 무슨 예술가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팀장님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 사소한 생각이 모여 영감이 된다

아마 많은 BR인들이 한 번쯤은 비슷한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즉, 영감은 어느 날 갑자기 번쩍! 하고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에 길이 남은 천재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하루에서 그런 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엄청난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떠오르는 '그저 그런' 생각들을 메모해둡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일의 나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수첩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를 짜맞춰 뼈대를 만들고 쓸만한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나중에 내가 다시 수첩을 봤을 때 그 메모의 내용, 의도,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나, 혹은 타인에게 지금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메모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고민하는 BR인의 자세를 응원합니다!

### 삼일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당신에게

기록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메모는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는 일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습관 들이기가 힘드네요. 이따금씩 굳은 결심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 아주 작은 존재감으로 생활을 바꾸세요

메모와 기록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당신. 책이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써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굴레가 되어 오히려 꾸준함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힘을 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일이니깐요.

메모를 생활에 들이는 일은 작은 고양이와 친해지는 일과 비슷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몇 글자만 적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혈령한 패턴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메모'라는 작은 고양이와 안면을 트고 나면 이후로 방법, 주기 등을 바꿔가며 자유자재로 메모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가 했던 메모들을 후루룩 살펴보세요. 필요했던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면서 메모의 실질적인 가치를 느끼게 되면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더불어서 메모를 위한 노트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작고 가벼운 수첩을 추천합니다!

지난 시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다시는 그 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록은 무심코 지나친 순간들이 아쉬운 추억으로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지금 당신 결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글. 편집실

## 소중한 하루를 남기는 방법

# # writer # record



## #감사일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파란 많은 인생에서 드라마 같은 성공을 이뤄낸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권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장에 감사한 일을 적으며 삶에 대한 자세를 고쳐나갔던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매일 반복되고, 당연하게 펼쳐지는 하루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속도를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촘촘하게 숨어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은 아주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 삶의 톤(tone)이 바뀌는 것이죠. 매 순간 감사한 일을 찾는 습관이 자리잡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 10분, 감사일기를 통해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추천 검색어 **세줄일기**



## #에세이 프로젝트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책을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려고 하면 그간 머릿속에 쌓아왔던 수많은 아이템들이 순식간에 하찮게 보이고 어떤 문장부터 써야할 지 막막해집니다. '에세이 프로젝트'는 글을 좋아하지만, 막상 책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글을 씁니다. 30개의 글이 모이면 제본된 책 형태로 받아볼 수 있죠. 나만 보는 책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부담은 덜고, 책 형태의 결과물을 직접 받아 보람과 재미는 배가 되죠. 더불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깨닫게 된답니다.

추천 검색어 **컨셉진, 당신의 지금, 클로즈업 프로젝트**



## #기록습관 챌린지

많은 이들이 기록, 메모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챌린지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며 나와 다른 시각을 배우고,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까지 더해져 활동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챌린지 참여 이후 글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은 물론, 자신의 글쓰기 패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생각과 글솜씨가 부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추천 검색어 **커리어리 기록습관 챌린지, 퍼블리 매일 워기 챌린지**



# ADIEU 2021년도 수고했어 나 자신!

## BR인 예쁜 손글씨 대회 결과 발표

항상 이맘때 즈음엔 쏠살 같은 세월의 속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따금 과거의 순간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완벽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그간의 고군분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간 <BORYUNG>에서 한 해동안 수고한 BR인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접수 받았는데요, 많은 BR인들이 정성 가득한 손글씨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 가장 예쁜 손글씨로 선정된 BR 10인의 손글씨 지금 구경하러 가볼까요?



안좋은 일은  
바람처럼  
스며가고  
좋은 일은  
강철처럼  
스며들길..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했어!

보령제약 경영기획팀 이영은 님

2021년..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즐거웠어  
아주 훌륭해  
그리고 자주는 봐온/연진 굿모닝  
아주 완벽해

보령제약 원료합성팀 마정협 님

2021년도를 보내며,  
부족한 점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아  
감사했던 한해. 고생했다^^

보령제약 인사팀 김인근 님

을 한해 잘 보냈으면서  
왜 우울한 생각을 꺼내려 해  
앞으로 더 행복해질꺼야  
너 잘 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너 잘하고 있어  
보령제약 제제연구소  
분석연구1팀 김수성

보령제약 분석연구1팀 김수성 님

2021년,  
힘든일이 많았지만,  
힘든만큼 많은것을 배웠을거야.  
앞으로도 잘할거야 넌!

보령제약 임상기획실 서슬기 님

때때로 무기력해질때..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의 정성을 들여,  
일상을 나아지게 해보자.  
BRV

보령제약 MS2 김미숙 님

세아리와 함께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난 잘하러 있다.  
내년에도 하이팅 ~!!

보령제약 서울클리닉5팀 이승후 팀장

꼭꼭은 일들이  
이루어져라  
화이팅!  
BORYUNG

보령제약 원료합성그룹 김창모 그룹장



보령 석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였어요!  
올해도 고생많으셨습니다!!  
2021  
건강  
행복  
사랑  
하이팅!!  
보령

보령제약 RWE 연구팀 임상전략실 이사라 님

괜찮아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할거야  
오늘 수고했어  
BRV

보령제약 Rx전략그룹 안숙정 님



# 2021년 보령제약 뉴스 총정리!

올 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여전히 COVID19으로 혼란스러웠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한 해 동안 보령제약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글: 편집실



2021.0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를 위해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온 결과,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입사자 90%가 청년이었으며, 이중 여성이 40%를 차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400% 상승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모델을 직접 개발하며,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엘오공(L50)’, 제네릭 시장 2분기 처방액 1위**  
‘엘오공(L50)’의 2분기 누적 원외처방실적이 ‘아토르바스타틴+아제티미브’ 제네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4월 출시 이후 첫 주부터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며, 매달 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인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이후 총 100여 개의 제네릭이 발매될 정도로 치열한 시장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07



**예산공장, 항암제 생산라인 가동**  
지난해 11월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 GMP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리주(보르테조미) 생산을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옥살리플라틴 등의 항암제도 예산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항암제 생산을 통해 고형제 및 항암제 생산라인이 모두 가동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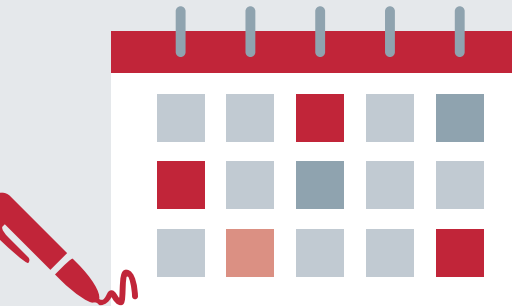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글로벌 수준의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이 2018년에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카나브, 적응증 추가 획득 및 사용연령 확대 승인**  
‘카나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RB계열 고혈압치료제에 관한 단백질 감소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 사용연령 확대도 승인 받았다.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 301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로사르탄에 비해 카나브의 단백질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08



**중국 ‘시노팜’과 약 1,0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  
중국 국가 기업인 ‘시노팜(China Sinopharm International Corporation)’과 제산제 ‘겔포스(중국제품명 포스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8,714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로, 시노팜은 향후 5년간 중국 대륙 32개 성(省) 전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겔포스’를 독점 판매하게 된다. 보령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에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겔포스’의 공급망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0



**의사 맞춤형 의료정보채널 ‘브릿지(BRidge)’ 오픈**  
의사 맞춤형 의료정보채널 ‘브릿지(BRidge)’를 선보였다. 브릿지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만나오던 의사 고객들과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령제약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이다. 웨비나 및 웹심포지움의 진행뿐 아니라, 최신 의학 논문과 의약품 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카나브 발매 10주년 매출 1,000억 돌파**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가 TS(Trade Sales, 보령제약에서 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거래되는 매출) 기준 2021년 12월 1일자로 매출 1,000억 원을 조기달성했다. 더 나아가 2021년 누적매출 1,100억 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카나브 발매 10주년이 되는 해의 결실로 더욱 의미가 크다. 카나브 패밀리는 중장기적으로 2,000억 원 달성에 도전할 예정이다.

11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스’ 국내 권리 인수**  
보령제약이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사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스’에 대한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제약은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스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게 됐다. 릴리의 오리지널 제품인 ‘자이프렉스’는 1996년 출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조현병 치료제로 약 50%의 점유율로 처방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보령제약의 5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보령제약 창립 58주년 유튜브 Live 기념행사

보령제약이 지난 11월 11일 창업 58주년을 맞아 (보령제약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과 온라인 퀴즈쇼까지 진행된 보령제약의 58번째 생일파티의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 창립기념 우수사원 표창

먼저 보령제약 창립 58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보령제약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상부문은 장기근속, BR 리더, 뉴프론티어, 공로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상은 장두현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3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750만원, 2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500만원, 10년 장기 근속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 25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대표로 병원 5팀 홍성원 님, CP운영팀 이행수 님, CD MKT팀 엄제오 님이 수상했습니다.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리더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BR 리더' 부문에는 CLINIC1영업그룹 이우철 그룹장, 특허팀 이경준 팀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여행상품권과 순금 C 바넷지가 수여됐습니다.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가 우수하며 회사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뉴 프론티어' 부문에는 병원2팀 김도환 님이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순금으로 만든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리 자이프렉사 브랜드 인수' 건에 공을 세운 사업 개발팀 김원용 님 외 19명, 'FIMASTAR Project' 운영에 기여한 MS 2팀 김민선 님 외 32명에게도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두현 대표이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통해 조만간 카나브 2천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보령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웅제 Rx부문장은 "58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해온 보령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보령제약이 '좋은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직원들 격려했습니다.



### 푸짐한 경품이 가득! 보령배 온라인 퀴즈 쇼

이번 기념행사 2부에서는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퀴즈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로 서울 클리닉 7팀 정일희 님, 서울 클리닉 4팀 김다빈 님이 맡아 통통 튀는 입담으로 위트있는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보령제약 역사 관련, 각종 시사상식, 문화 부문 전반에 걸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인기리에 진행되었던 보령배 온라인 퀴즈쇼의 우승을 거머쥔 수상자 세분의 소감 한 마디 들어보시죠!



우수한 성적의 비결은?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보령배 온라인 퀴즈쇼 수상자 3인방 인터뷰!



#### ESG 파트 이용호 파트장

소소한 소식이라도 챙겨보는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1등의 비결이 아닐까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영, 제품 이슈 등에 관한 뉴스클리핑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찍어서 맞춘 행운은 덤이고요.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 성장해온 보령제약의 일원이란데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창립 58주년 축하드리고요, 더욱 더 발전하는 보령제약이 되길 기원하고, 저 역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함께 전진토록 하겠습니다.



#### Chronic Disease 마케팅팀 엄제오 팀장

평소 출근길에 시사, 경제 관련 라디오를 들었는데 관련 분야의 문제가 나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 중보홀에서 들었던 ESG 관련 임직원 특강이 기억나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네요. 보령제약 역사에 대한 정보는 애사심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정보였고요 제가 이번 기념식에서 10주년 근속자 대표로 상을 받았는데요. 퀴즈에서도 2등을 하고, 행운권 추첨에서도 뽑혔습니다. 잊지 못할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하신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사우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 카나브 마케팅팀 박진우 님

제가 3등으로 뽑힐 수 있었던 큰 힘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어려운 퀴즈를 맞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소 시간이 될 때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페이지를 챙겨보는 습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행자 분들이 던져주신 위트 있는 힌트에 더 큰 도움을 받은 건 비밀입니다. 정형화된 형식이 아니라 실시간 채팅, 퀴즈, 축하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행사였습니다. 58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보령!



# Volun- teering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  
연세가정의학과 이종규 원장

# People

실력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참 의사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북 울진 연세가정의학과 이종규 원장이다.  
그는 시골 동네 의사이자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다.  
병원이자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이 원장을 울진 연세가정의학과에서 만났다.

글. 전해정 사진. 박찬혁



## 우연히 시작된 봉사의 삶

경북 울진군에서 만난 이종규 의사는 환자의 어떤 병이든 진료하는 척척박사 의사선생님으로 유명하다. 이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전문의가 없는 탓도 있지만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며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료계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큰 명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모든 의사들이 흠모하는 상이죠.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선배 의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종규 원장은 우연한 기회에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바로 1986년 필리핀으로 떠난 여름휴가에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부터인데, 3박 4일간의 여행이 의료 봉사로 탈바꿈되었으니 가족들의 원망도 대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 아이들도 잘 협조해주었고, 지금도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었다고 회상한다고 했다.

이후 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 2년, 9.11 테러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 난민촌 의료 봉사, 몽골, 네팔 등 꾸준히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청산리 대장정 의료진으로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봉사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 꾸준히 봉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

이종규 원장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람바레네 통신’ 슈바이처 일대기를 읽고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봉사 역시 우연히 시작해 20여 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 꾸준히 이어져야 좋은 것이 봉사라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의사는 슈바이처처럼 자기희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풀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가치있는 일이에요. 꼭 큰 일이 아니라도 말이죠. 하다가 중단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어 “봉사 현장에서 얻는 뿌듯함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기억만을 선물하는 것이 봉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남들은 한 번도 타기 힘들다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의무실장으로 3번이나 탑승해 승객들을 진료했고, 몽골, 네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수많은 빈민국의 환자들을 돌봤다. 그 중에서 이 원장은 정성껏 치료했지만 두개골 관통 총상을 입어 결국 사망한 탈레반 병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네팔의 돌리켈이라는 작은 도시의 학교에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준 게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했다.

“탈레반 병사는 사망하기 전날까지 진료했으나 결국 사망했어요. 하필 지뢰밭에 걸리게 되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5시간이나 소요

되어서 더 진료할 수 없었던 터라 아직까지 안타까움이 커요. 좋은 곳에 갔기를 바랄 뿐이죠.”

### 모두가 함께 하는 봉사이기를

이종규 원장은 진료실을 떠나 진료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봉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동 표준 지침서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참 의사로, 봉사하며 살 계획입니다.”



### 봉사내역

- 1986.7~1986.8 필리핀 의료봉사활동
- 1994.1~1996.1 미얀마국 정부 파견 의사, 열대우림 ‘콩고무’ 마을 정기 방문 진료
- 2001.11~2001.12 9.11 테러전쟁 중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의료봉사  
타지크스탄 빈민 의료봉사(두산베시 외곽)  
UN지정재난지역의료봉사(우즈베키스탄내 이랄해 인근 무이낙지역)  
(한국, 미국, 우즈베크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연합의료팀장)
- 2002.1~ 현재 사랑의 교통 봉사대 특별회원
- 2002.3.20~2002.4.20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주관 비만 버스 운영
- 2002.6 월드컵 의료지원 자원봉사(서울특별시)
- 2002.7.13~2002.8.1 외교통상부 주관 한.러 친선특급 시베리아횡단 열차의무실장
- 2002.8~2002.10 태풍 루사로 인한 김해시, 영동군 및 동해시 수해지역 파견의사  
(사)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주최 청산리대장정 전담 의료팀장
- 2004.7~현재 평해 노인 요양원 촉탁의
- 2009.3~ 2011.3 울진군 의사회장
- 2009.8 철도대학 주최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견학팀 의료팀장
- 2010.7~ 2012.8 몽골 의료봉사(몽골국)
- 2012.11~ 현재 네팔 돌리켈시의 따망가우 마을 진료 및 EEB 학교 학생 건강 검진
- 2015. 5. 네팔 지진 구호팀 자원 봉사
- 2015. 6. 제14기 청산리 역사 대장정 의료단장
- 2015.7.13~8.2 유라시아 친선 특급열차 의무실장
- 2015.11.13~11.21 네팔 지진 현장 및 EEB 학교 정기 의료 봉사
- 2016. 11 제5회 네팔 정기 해외 의료 봉사
- 2017. 11 제6회 네팔 정기 해외 의료 봉사
- 2018. 11 제7회 네팔 정기 해외 의료 봉사
- 2019. 11 제8회 네팔 정기 해외 의료 봉사

### 수상내역

- 2002. 대한의사협회공로상
- 2009.12. 울진 군수 표창
- 2010.2 제1회 경북 의사회 봉사상 수상
- 2011.1 보령 수필 문학 <매듭>으로 문학상 수상
- 2012.10 한국에세이 문학상 수상
- 2013.6 주한 네팔 대사관 감사장
- 2014. 11. 22 에세이 문예 공로상 수상.
- 2014. 12. 3 제7회 대한민국 환경 & 사회봉사 대상 수상(보건복지위원장, 녹색상)
- 2014.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내외 매일신문 주최).
- 2015. 10.7 자랑스러운 경동인 수상(경동고등학교 총동창회 주관)
- 2016. 10.28 외교부 장관 표창장

말만 잘한다고 영업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선 잘 듣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요.

영업 현장에서 숨소리만 듣고도 상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령제약의

영업의 달인이라 불리는 CNS 영업 1팀입니다.

글. 전해정 사진. 박찬혁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 우리는 '흥길동'입니다

보령제약 CNS 영업 1팀

### 지시보다 경청에 집중합니다

흔히들 제약 영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그 누구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령제약 CNS 영업1팀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부터 경기, 강원도까지 종합병원, 클리닉, 전문정신건강의학과를 아우르는 영업의 특성상 팀원 모두가 모이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더 바빠진 이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CNS 1영업팀의 자랑은 '경청과 소통, 역피라미드형 발언점 유율'입니다. 경청과 소통은 흔히 알고 있으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역피라미드형 발언점유율'에 대해 조민국 매니저가 한 마디로 요약합니다.

“팀 미팅 시 담당자별 성공사례 및 Best Practice 등 미팅 안건에 대해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말하기보다는 경청에 집중하는 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가 바탕이 되어 회의 시간에도 시간 때우기가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가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쌓일 때 회복탄력성을 지켜주는 것도 팀이라고 치켜세웁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CNS 영업1팀은 쫄쫄한 소속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이프렉사 권리 인수로 활기를 띠다**

올해 10월 보령제약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조현병 치료제인 자이프렉사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 권리 일체를 인수 체결하게 된 것인데요. CNS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춘 것 같다는 거래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제품 인수와 함께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CNS 영업그룹에 확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팀 내 분위기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조영균 팀장은 "기존에는 정신질환의 포괄적인 접근 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전문분야별 고객과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 차원에서 새로운 영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마케팅을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이프렉사 활동 시작과 동시에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근거 있는 자신감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습니다.

**CNS 전문가로 거듭나다**

우울증, ADHD 등 정신건강의학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CNS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 자이프렉사 도입으로 보령제약은 시장 내 입지를 더욱 더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이프렉사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환 및 제품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등 CNS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될 때 보령제약의 네임밸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NS 영업1팀이 소개하는 우리팀 TMI



**메신저 단체방 일밤 진동 100번 이상 울리는 팀!**  
업무내용도 있지만, 날씨가부터 각자 먹은 점심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메신저 진동이 끊이질 않아요.



**강철부대**  
최정예 팀원들이 각자 담당지역을 걸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어요.



**지하철**  
지하철처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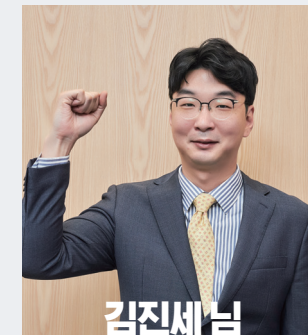
**외유내강 팀!**  
조용하고, 소심해보이지만 영업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합니다.



**끈끈한 전우애! 형제애가 넘치는 팀!**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동료로 인정해주는 멋진 팀이에요.



**새바람!**  
보령제약의 전통에 외국계회사의 문화를 접목시켜 온고지신의 정방향으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역전시킬 팀!**  
자이프렉사 인수를 통해 보령제약 주식을 리딩할 것 같아요!



**미혼남녀가 1명씩 있는 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꼼꼼함으로 오늘도 보령제약의 지적재산권을 지킵니다.”

## 제약사의 생명권,

## 지적재산권을 지키다!

### 보령제약 특허팀 이경준 팀장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는 보령 무패신화를 이끄는 주인공, 이경준 팀장은 오늘도 꼼꼼하게 업무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갖는 특허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고, 개발을 못하게 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생명을 지키고,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경준 팀장으로부터 특허팀의 직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 전해정 사진. 박찬혁



### Q 특허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팀장님의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팀은 제품개발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나눠보면 자사의 연구성과를 독점성과 배타성을 갖는 특허로써 권리화를 시키는 업무와 제품개발에 장애가 되는 타사 특허들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네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허로써 권리화를 시키는 과정은 연구원들의 연구내용에 대한 특허성을 검토하는 단계, 특허출원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특허청에 출원하는 단계 및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성과를 최대한 넓은 권리로써 보장받기 위해 연구원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허들은 자사 제품들이 독점적으로 시장 내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령의 자랑인 신약 카나브 및 카나브패밀리 제품들도 해당 특허기간 내에서 독점판매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처럼요. 지금도 자사 자체 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연구소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사의 특허가 제품을 개발할 때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품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이 타사의 특허로 묶여있거나 제품 발매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장애가 되는 특허들이 있는 경우엔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특허 승인기관인 특허청에서 전문적인 특허 심사 후 등록된 특허들에 대해 다시 무효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이를 기준으로 유관부서에서는 제품개발 일정을 잡고, 이후 제품개발 일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허소송 등을 통해 장애가 되는 특허를 무력화시킨답니다.



**Q 특허팀의 업무를 이행하는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또한 특허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특허팀은 특허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꼼꼼함, 이를 바탕으로 업무 목적에 맞는 논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사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선행 기술들을 분석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내야 하고, 특허를 무효시키고자 할 때에는 역시 선행 기술들을 조사/분석해서 무효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고 분석하는 업무나 이를 바탕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Q 제약회사 특허 업무를 지원하게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울러 의약품 특허 검토 업무는 타 분야 특허와 비교할 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잠깐 종합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특허변리업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기가 되어 제약회사 특허팀에 입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품 개발하는데 있어 의약품 특허 검토 업무는 개발 초기 단계와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선 개발일정을 확정하는데 특허팀 의견이 반영이 되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선 특허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발매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죠. 특히 특허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의약품을 발매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입된 개발비용도 다 없어지게 되는 등 리스크가 커요. 의약품 특허는 타 산업보다 기술이 복잡하고 변화되는 추이가 빨라서 이를 해석하는 부문에 있어 쟁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를 검토할 때 변화된 트렌드를 빨리 습득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높이는 프로세스가 많이 요구됩니다.



**Q 팀장님의 업무 노하우와 스킬을 공개해주세요.**

다른 부서의 업무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허팀 업무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고민하며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이 것이 어떤 흐름을 타고 온 것인지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며 관련된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저만의 업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Q 근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미국에서 판매 독점권을 갖는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해보자는 계획이 있었 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퍼스트 제네릭은 발매 초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매출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소송은 국내 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특허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체 세미나와 스터디 그룹을 운용했던 기억, 미국 법리에 맞게 특허무효검토를 진행하고 현지 변호사와 감정을 진행하고, 성공기원을 위한 풍등도 날린 기억이 나네요. 이후 여러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프로젝트였지만, 그 프로젝트를 위해 뚝뚝 뚫었던 그 당시 모습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 집니다.

또한 재입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2007년 입사했다가 2014년에 여러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겨울 재입사 하였습니다. 퇴사하지 않았다면 장기근속자가 되었을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보령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Q 특허팀 근무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신약을 다시 개발한다면, 개발초기부터 특허전략을 세워 물질특허 만료일 이후에도 10년, 20년 특허권이 살아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어요.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장기적으로 연구소, 개발, 임상, 마케팅과 같은 유관부서와 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허 포트폴리오 안에 제 경험과 지식을 다 녹여서 멋진 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함께하는 구성원(팀원)들과 보령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팀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고 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위안인 것 같습니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들에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마디 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던 말이지만, '여기까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있다면, 그곳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주세요. Extra Miles Spirit~! 파이팅!!



# 브레멘 음악대의 좌충우돌 데뷔기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용각산쿨

주인에게 버림받은 네 마리 동물들이 모여 밴드 데뷔의 꿈을 위해 브레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브레멘 음악대의 좌충우돌 데뷔기, 함께 하시죠!

글. 편집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네 마리 동물들이 모여 밴드 데뷔의 꿈을 위해 브레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브레멘 음악대의 좌충우돌 데뷔기, 함께 하시죠!

⋮

오늘도 장시간의 연습을 마치고 녹초가 된 네 마리 동물들. 빈 헛간에서 잠잘 준비를 마치고 두런두런 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당나귀** 다들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내일이면 브레멘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 내일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니 다들 잠은 꼭 자두라구!

**수탉** 콜록콜록... 에구구구 나 죽네. 콜록콜록...

**고양이** 아이고 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 수탉아 너 무슨 일 있니? 끊임없이 기침을 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나원참 쫓.

**수탉** 고양이야 미안해, 하루종일 건조한 실내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안 좋은가봐. 조용히 해볼게.

**당나귀** 지금 잠이 문제니! 너 우리 밴드의 보컬이잖아. 우리 데뷔전이 내일 모레인데, 그 때까지 나올 수 있겠어? 이거 정말 큰일인 걸.

**고양이** 에구머니 정말 그렇네!? 우리 지금까지 그 데뷔전 하나만 보고 달려온 건데. 너 때문에 다 망치면 어떡해!

**개** 워워 다들 진정해. 내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용각산쿨을 챙겨왔다고.



그게 뭔데!???

용각산쿨을 모르다니 너넨 한참 멀었다. 자 수탉아 이걸 먹어봐. **기관지에 좋은 6가지 생약성분인 길경(도라지), 행인, 감초, 세네가, 인삼, 아선약이 기침, 가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천연 생약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오래 복용해도 안전해!**



**수탉** 네 덕분에 살았다. 고양이야 물 좀 줘볼래? 당장 먹어봐야겠어.

**개** 안돼! 이 가루의 좋은 성분들이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물 없이 먹어야 해. 먹고 나서도 30분 동안은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물이나 음식물은 먹지 말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구멍에 털어 넣어봐. 타액으로 쉽게 용해되니까 힘들지 않을 거야.

**수탉** 오! 정말 먹자마자 목이 바로 깨끗해지는 느낌이네! 내일 연습은 문제 없겠어!

**개** 1회용 스틱 포장으로 들고 다니기도 편리해.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 가지 맛이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

**수탉** 용각산쿨 이거 물건이네~ 요즘 같은 겨울날 없어서 안 될 아이템이야. 나도 내일 아침 일찍 약국으로 가서 한 박스 쟁여놔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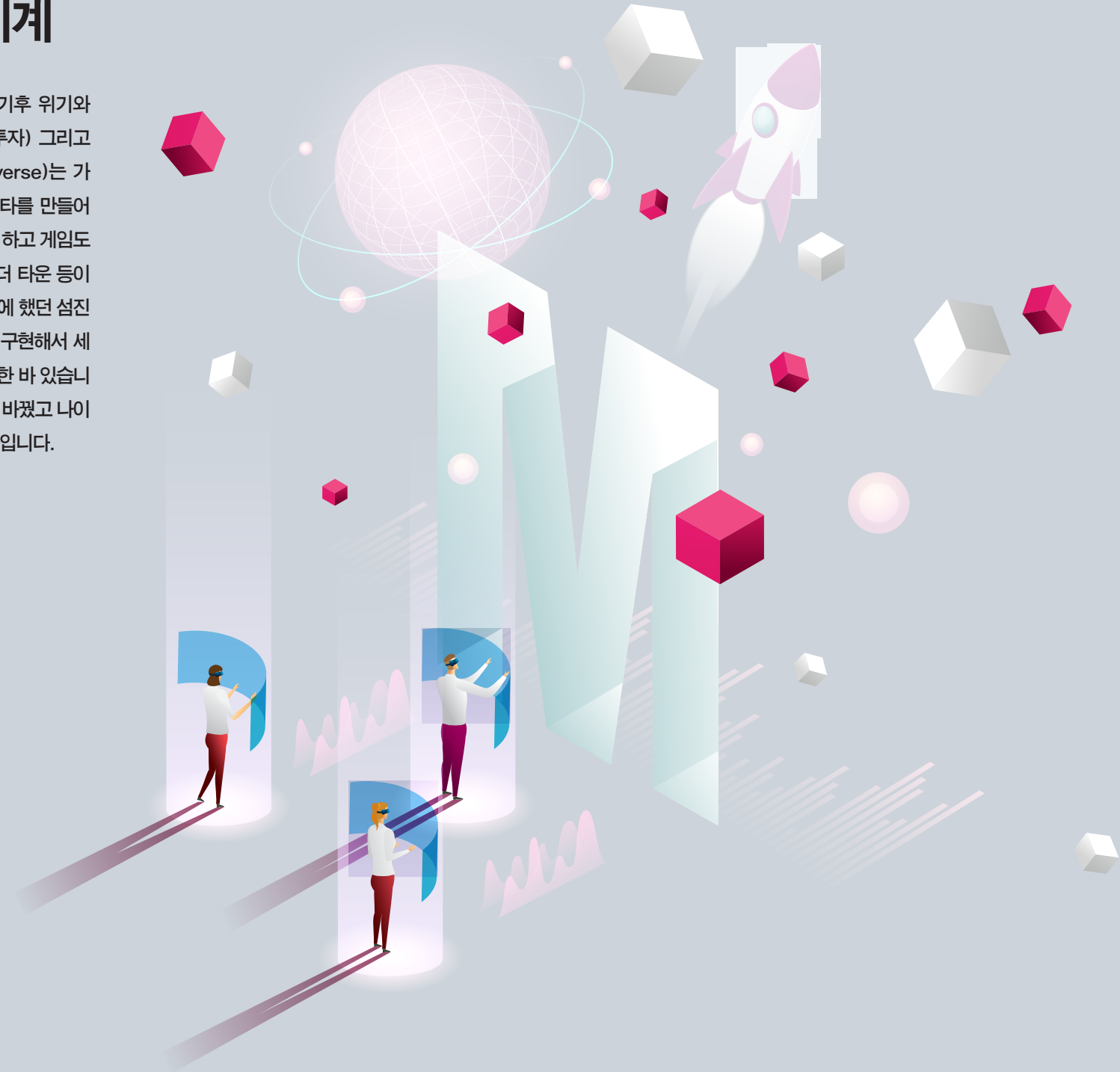
⋮

용각산쿨을 먹은 수탉은 목소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음날 연습은 물론,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 네 개의 세상, 그리고 거울 세계

2021년을 달군 3개의 키워드는 기후 위기와 ESG 경영, 영끌(주식/암호화폐 투자)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시도 보고 회의도 하고 거래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지금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등이 인기 플랫폼입니다. 저도 지난 가을에 했던 섬진강 국제 실험예술제를 제페토 안에 구현해서 세계 30여 아티스트들의 아바타 참가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꿨고 나이키 등도 메타버스 내 입점을 진행 중입니다.

글. 황인선 문화평론가



## 화상 큐레이터

메타버스는 전 호에서 말한 것처럼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구글 어스 등), 라이프로그(Life-logging, SNS, 나이키 플러스), 미러 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R)의 네 개로 구성되는데 이중 라이프로그는 하나의 세상이라기 보다는 미디어에 가깝죠. 그래서 메타버스 중에 3개 즉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러 월드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합쳐서 네 개의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우리의 지각 경험을 확장해 줍니다. 미러 월드는 화상 회의나 교육, 화상 방송처럼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사용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세상입니다. 메타는 가상현실 안에 '호라이즌 워크룸'을 만들고 이제 직장인은 빌딩이 아니라 그 가상 워크룸으로 출근할 것이며 미래 메타버스(가상현실)의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될까요? 신기함은 있지만 1. 모바일 중심, 2. 아바타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3. 실제 이용에서 오는 오류와 불편함 등이 크고 특히 40대를 넘어서면 이런 경험이 매우 불편하여 당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반면 미러 월드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클릭만 하면 바로 접속되고 임의로 나가기도 쉽고 피곤하면 비디오를 꺼두고 오디오만 켜도 됩니다. 사람 얼굴도 직접 보지요. 웹RTC(Realtime Communication) 기술 덕분입니다.

가을 호에서 세상이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정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개의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를 대중적으로 이끌 것은 거울 세계 즉, 화상 현실일 것입니다. 응용 가능성도 큼니다. 조만간 가상현실 내에 거울 세계 기능이 융합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는 풀피리 협회는 이프랜드에서 공연도 하고 친교와 강습도 합니다. 단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도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들어봤는데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 사진만 입력하면 얼굴은 자기 얼굴인 썬 아바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굴 노출을 피하려고 하는 이용자도 많을 테지만 이런 아바타 복면 사회는 아바타 악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요즘 화상 북토크, 회의, 교육도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 심포지움도 화상으로 참가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삶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구루미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송할 때 화상 솔루션을 제공했고, 통영과 '화상 큐레이터(Curator)' 육성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화상 큐레이터는 다양한 화상 솔루션을 숙지하고 화상 스튜디오 조성교 교육, 가상현실과 융합하며 국내외 다양한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면 화상 사회 즉, 거울 세상은 빠르게 확산하고 소통도 편리해질 겁니다. 이젠 보령도 네 개의 세상을 준비할 때입니다. 신세계 일지, 낯선 세상일지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필자 황인선 소식** 2021년에 <저부터 MCN이 될래요>, <빅샷, 황인선의 마케팅 AI> 두 권을 출간했습니다. MCN(마친농의 이니셜)은 저의 정체성을, 빅샷은 30년 마케터로서 제 경험과 심득을 기록한 책입니다. 보령 여러분도 자신의 기록을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승규**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릉 KIST에서 의약품합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 <25가지 질병으로 읽는 세계사> 등 인문학으로 읽는 약 이야기와 관련된 저서를 출간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 현악기의 줄을 고르듯

## 정신을 조절하는 조현병 치료제

글. 정승규

### 신이 내린 벌에서 질환으로

옛날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특이한 행동을 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 귀신을 쫓기 위해 굿을 하거나 주문, 부적을 사용하는 등 미신적인 방법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멀리 남미 페루 지역에서는 특이한 구멍이 난 머리뼈가 발굴되었는데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뼈다. 신기한 점은 두개골에 수술한 흔적이 있었다. 머리에 구멍을 뚫었는데, 학자들은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뤄진 수술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악한 귀신이 머리에서 빠져나가라는 목적으로 뇌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중세 서구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정신병 환자는 고문 받거나 공개적으로 화형 당하기도 했다.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이 있다고 여겨 수용소나 감옥에 강제로 감금시키고 사회에서 격리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개념보단 고립시켜 방치하거나 비인간적이고 가혹하게 대했다.

18세기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퍼지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때부터 정신질환을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정신병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정신병은 유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가족 중 한 사람이 정신병원이나 수용소에 들어가면 환자의 가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일반 사람들도 사회적·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천 명이나 수용하는 대형 정신병원이 생겼다.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성적억압과 환상이 어른이 되어 나타나 정신병 같은 신경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꿈 해석 이론을 통해 인간 행동의 특이한 점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무의식에 대한 기억, 충격, 본능 등을 대화로 드러나게 해서 정신분석을 통해 치료하려고 했다. 심리치료에서 이후로는 약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1930년대에는 인슐린 혼수 요법이 있었다.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환자에게 매일 서서히 인슐린양을 조금씩 늘리며 주사하는 방법이다. 인슐린이 혈중에서 증가하면 저혈당을 유발하는데 그러면 환자는 기운이 빠지면서 잠이 들었다.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를 20분에서 최대 2시간 유지하다가 당분을 주사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의식이 깨어났다. 20회 반복해 치료하면 환자 80%에서 병이 호전되었다. 당시 인슐린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에서 치료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약한 전기자극을 이용한 경련 요법이 있었다. 전기충격을 가하면 가벼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정신병이 호전되었다. 가격이 인슐린에 비해 저렴하고 치료 효과가 높았지만, 전기를 이용해 경련을 일으킨다는 부정적 인식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츰 사용되지 않았다. 인슐린 요법도 혼수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커서 1950년대 치료제가 나오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다양한 형태의 조현병 치료제 개발

뇌과학의 발달로 현재는 정신질환을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이해한다. 뇌 속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데, 불균형이 초래되면 정신병이 생긴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지만, 2011년부터 정신이 분열된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뀌었다.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라는 뜻이다. 조율을 잘하면 현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부조화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치료는 약물, 심리, 상담 요법이 있다. 이때 가까운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중요하다. 만약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초의 조현병 치료제는 1952년 프랑스 의사 라보리가 개발한 클로르프로마진이다. 당시 세계 제약업계의 이슈는 항히스타민제 개발이었는데 분자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얻은 클로르프로마진은 조현병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다. 파리 근교 정신병원에 자크라는 젊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미친 소리로 떠돌고 주변에 보이는 대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기망이 없는 자크에게 라보리는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여할 것을 권유했다. 놀랍게도 자크는 금세 정신이 안정되더니 몇 시간 후에 잠이 들었다. 잠이 깨자 다시 광기에 빠지기 까지 18시간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약을 주기적으로 계속해 투여하자 정신이 평온해지는 시간이 늘어났다. 3주 후, 자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조반니라는 중년의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 떠들며 큰소리치는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들어왔는데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여하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잠시 후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똑같은 반응을 반복했다. 규칙적으로 약을 투약하면 안정되어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좋아졌다. 헛소리하며 고함치는 빈도가 줄어들더니 9일 후에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

3주 후 그도 자크와 마찬가지로 퇴원할 수 있었다. 클로르프로마진이 치료하기 어렵고 위험한 환자들을 순한 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적의 약 클로르프로마진 덕분에 정신병 환자가 집단으로 퇴원했다. 1955년 559,000명으로 최고에 달했던 미국 정신병 환자는 1990년 120,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클로르프로마진 이후 여러 가지 조현병 치료제가 나왔다. 클로르프로마진을 정형 항조현병 약으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비정형 항조현병 치료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처방되고 있다. 비정형 항조현병 치료제는 다양한 정신과 질환에 응용돼 갈수록 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정신과 약을 매일 먹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편리하게 1~3달에 1번만 주사하면 되는 약도 있고 파스처럼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도 나왔다.

보령제약은 지난 10월 세계적인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의 모든 권리를 인수했다. 자이프렉사는 조현병뿐 아니라 양극성 장애(조울증)에도 쓰이는 대표적인 약인데 정신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속의 도파민 불균형을 조절하는 약이다.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14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동일 성분 시장에서 50% 점유율로 처방액 1위를 기록했다. 기존 부스파(정신억제제), 푸로작(중추흥분제), 스트라테라(행동장애) 등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이뤄 2025년까지 중추신경계 치료제에서 연 500억 원 매출 달성이 목표다. 자이프렉사 같은 우수한 정신과 약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대인의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한국약제학회,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약제학회가 지난 11월 17일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에게 학회의 이름으로 '특별공로패'를 수여했다. 권오승 회장을 비롯해 회장을 역임한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와 전인구 전 동덕여대 교수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령제약을 방문해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보령제약 장두현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특별공로패를 전달했다.

1971년, 보령제약은 대한약학회 산하 약제학 분과학회에서 독자적인 학회로 출범한 한국약제학회에게 사무실 입주출자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같은 고마움을 학회 홈페이지 학회 창립 배경란에 상세히 기록해 놓은 약제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승호 회장에게 특별공로패를 전달한 것이다. 공로패 시상식에 참여한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건강한 모습의 김 회장님은 '나는 생각 나지도 않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시니 감사하고 감동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공로패 전달식 분위기를 전했다.

###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보령중보재단에 주식 출연



지난 10월 1일 보령약국 보령약국창업일을 맞아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에 출연했다. 보령중보재단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공존공영을 실현한다는 보령제약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지원, 문화예술 체험활동, 치료비 지원,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출연액은 39만 1,545주로 10월 1일 증가 1만 5,300원 기준 60억 원 규모다.

### 카나브 발매 10주년 매출 1,000억 돌파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가 TS(Trade Sales) 기준 2021년 12월 1일자로 매출 1,000억 원을 조기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누적매출은 1,100억 원에 도전하고 있다. 카나브패밀리는 지난해 3제 복합제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와 2제 복합제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를 추가로 출시하며 총 6종의 카나브패밀리 라인업을 갖췄고, 전 제품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지난해 연간 1,039억 원 처방을 기록했다. 보령제약은 올해 복합제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카나브패밀리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카나브 신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령제약은 내부망을 통해 "카나브 발매 10주년이 되는 해로 매출 1,000억 원을 조기 달성 의미가 더욱 값지다"며 "중장기적으로 2,000억 원 달성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보령제약 이삼수 의장, 약의 날 산업포장 수상



지난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제35회 약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약의 날은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7월 약사법에 기념일로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행사·교육·홍보를 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의약품 안전 확보와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 처장표창 38점, 장관표창 15점을 수여했다.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은 품질관리 혁신 노력으로 의약품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백신·치료제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약업계가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협력해서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보령제약,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 국내 권리 인수**



보령제약이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사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에 대한 자산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제약은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에 대한 국내 판권 및 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 릴리의 오리지널 제품인 '자이프렉사'는 1996년 출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조현병 치료제다.

**'임상 순항' 바이젠셀, 면역세포치료제  
대량생산 'GMP 시설'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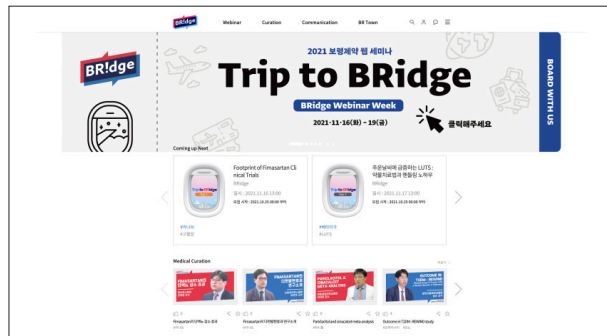
보령제약 관계사이자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바이젠셀이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 가속화 및 상업용 대량생산을 위한 GMP 첨단시설을 본격 착공했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더리즌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자리를 잡은 신규 GMP 시설은 2644㎡ 규모로 조성되며, 이를 위해 약 2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면 4,539㎡에 이르는 규모다.

**'용각산쿨',  
리뉴얼 광고 온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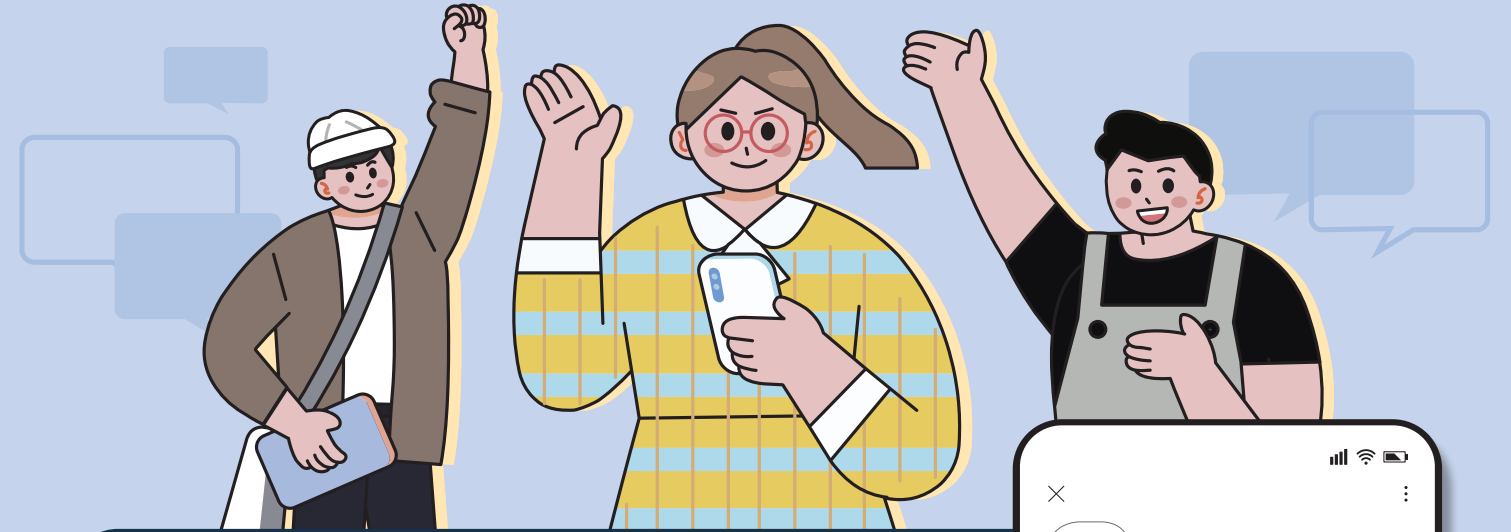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진해거담제 '용각산쿨'의 소비자 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224% 증가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출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용각산은 31.5%, 용각산쿨은 224.4% 성장률이 증가한 가운데, 용각산쿨의 가파른 소비자 판매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호흡기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헛기침' 광고캠페인의 효과가 이와 같은 매출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제약, 의사 맞춤형  
의료정보채널 '브리지(BRidge)' 오픈**



보령제약은 의사 고객들과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령제약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 브리지(BRIDGE)를 오픈했다. 웨비나 및 웹심포지움의 진행 뿐 아니라, 최신 의학 논문과 의약학 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의사들이 영상 기반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인터엠디 설문조사를 반영, '영상·이미지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브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다.

# 2022년 웹진 BRing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2021년 종이사보 <BORYUNG>에 보내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웹진 <BRing>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2022년의 웹진  
<BRing>을 기대해주세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웹진BRing 친구 추가하세요

**<웹진BRing>  
발행 소식을  
바로 알려드려요!**

매월 진행되는  
설문조사 이벤트에 가장 먼저  
참여해 당첨확률을  
높여보세요!

우리 회사의 핫 이슈만  
모아 소개합니다.  
보령제약의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파악하세요!



# 헛기침 목의 이상을 알리는 증상입니다

기관지 쿨케어  
**용각산 쿨**

